



## “모두를 위한 구걸 매우 기쁘게 일해”

티베트여성수행자프로젝트 총재 린첸 칸도 방한

66명의 여성들이 한밤중에 국경을 넘었다. 중국에 나라도 문화도 빼앗긴 이들 티베트 여성수행자들은 종교의 자유를 찾기 위해 길을 떠났다. 2년간 걸어서 히말라야를 넘은 이들이 도착한 곳은 인도 다람살라. 그러나 티베트망명정부 들어선 다람살라에 병든 그들이 편히 쉴 곳은 없었다. 망명자들도 망명정부도 가진 것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

립해 다람살라에 정착한 티베트 여성을 돕는 일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1987년부터 TNP 총재를 맡아 단체를 이끌고 있으며, 돌마링을 비롯한 여성수행자 사찰을 건립한 공로로 미국 평화유지상을 수상했다. 달라이 라마의 막내 동생인 켄도 최겔 린포체의 부인이자 두 아이의 어머니이기도 하다.

린첸 칸도는 27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이 첫 방한이라 한국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던 않지만 한국과 티베트는 생활과 문

화, 신앙 등에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며 “어려운 상황에서 수행하고 있는 티베트 여성수행자들에게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TNP 운영을 위해 전 세계를 다니며 모금 활동을 펼치고 있는 린첸 칸도는 “나 자신을 위해 ‘구걸(begging)’ 하는 것이라면 참피하겠지만, 모두를 위해 구걸하는 일이라 매우 기쁘게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TNP 총재로서 그가 가장 주력하고 있는 것은 ‘교육’이다. 비록 지금은 조국을 잃고 망명생활을 하고 있지만, 티베트인으로서의 정체성과 문화를 지켜나가는 것은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린첸 칸도는 이날 기자회견에 이어 열린 강연에서 “역사적으로 여성은 인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왔고, 따라서 여성이 활발한 정신적 활동을 펼치는 것은 전세계의 평화와 조화, 번영에 기여하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TNP의 비전은 티베트 여성과 여성수행자의 정신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TNP는 티베트 망명 여성수행자뿐만 아니라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없었던 인도 여성과 아시아 여성들에게도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린첸 칸도는 8월 28일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임원스님들을 만나 한국과 티베트 여성의 문화교류를 논의했고, 29일 국회에서는 ‘티베트 망명정부의 국가정책 지원’을 주제로 간담회를 여는 등 짧은 일정 동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TNP 활동을 소개했다. 이어 대중강연과 여성지도자 면담, 출신 불영사와 부산 통도사를 참배한 후 9월 4일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다.

티베트여성수행자프로젝트 후원계좌: 신한은행 110-221-925855(예금주 한주영) 홈페이지: www.tnp.org (02)722-2101

글=여수영 기자 · 사진=박재환 기자

### 티베트여성수행자프로젝트 홍보 및 활동 지원 요청 대중강연 · 간담회 등 통해 종교 · 교육의 자유 호소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임원과 만나 문화 교류 논의도

는 티베트여성연합(TWA)의 대표였던 린첸 칸도(Rinchen Kando · 62)에게 이들을 돌보도록 했고, 끊임없이 탈출해 오는 여성수행자들을 돕기 위해 1987년 티베트여성수행자프로젝트(Tibetan Nuns Project, 이하 TNP)를 설립했다. 티베트망명정부 종교문화부 산하에 설립된 TNP는 티베트 여성수행자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자신의 이념조차 할 수 없었던 이들에게 글을 가르쳐 경전을 읽을 수 있게 했다.

이러한 TNP를 이끌고 있는 린첸 칸도 총재가 8월 27일 방한해 한국과 티베트 여성수행자 교류의 물꼬를 텄다. 한국을 처음으로 방문한 린첸 칸도는 27일 서울 장충동 만해NGO교육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대중강연과 간담회 등을 통해 티베트여성수행자프로젝트의 활동을 알리고 지원을 요청했다.

린첸 칸도는 티베트 망명정부에서 장관이 된 두 번째 여성으로 1993년 내무부와 보건부 장관을, 1995-2001년 교육부 장관을 역임한 인물. 1984년 티베트여성연합을 창



기자회견을 하는 린첸 칸도.



8월 27일 열린 대중강연 모습.

### 티베트 여성수행교육기관

TNP는 현재 700여 여성수행자들의 생활과 교육·수행을 지원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TNP가 지원하는 사찰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혼자서 인거하는 수행자에게는 TNP에서 별도의 생활비를 지급하고 있다. 또한 TNP는 티베트

트의 문화와 종교적 전통 보존 △망명지에서 여성수행자들의 삶의 조건과 건강 향상 △티베트 여성을 위한 전통적이고 현대적인 교육 제공 △고등 교육을 받은 여성 스승 배출 △자활할 수 있는 여성수행시설 건립 등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 돌마링 승가대학  
TNP의 후원으로 다람살라 근처에 세워진 여성수

행도량. 최고의 여성수행자교육을 지향하며 종파와 인종을 초월해 티베트 종교전통을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기초적인 문자 교육에서부터 티베트어, 종교철학, 영어, 컴퓨터 등의 일반교육과 최고과정의 불교철학까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1년간의 과정을 이수하고 나면 졸업장이 주어지고 졸업생은 티베트학교에서 가르치거나 다른 여성수행자들을 지도할 수

있다. 티베트어나 불교철학을 전공해 박사학위에 준하는 게슈마(Geshama)를 획득할 수 있다.

■ 숙성 승가대학  
남파(Nyngmapa)의 전통에 따라 9년간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찰이자 교육기관. 남부 인도의 남도령 대학과 같은 교육과정을 실행하고 있다. 이 과정의 여성수행자들은 네살 등지에서 인거와 수행을 하기도 한다. 교육과정을 마친 여

성수행자들은 기초과정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 졸업생들이 학업을 계속하면 탄트릭 철학 전통의 스승에게 주는 켄포(Khenpo) 지위를 받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침을 전할 수 있다.

■ 게덴 출림  
다람살라에서 가장 오래된 겔룩파(Gelukpa) 여성수행도량으로 다양한 연령의 여성수행자들이 거주하고 있다. TNP는 이곳에 겔룩파 전통에 따

른 정규 교육과정을 확립해 여성수행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교육을 통해 게슈마(Geshama) 학위까지 받을 수 있다.

■ 티룩푸르  
카구파(Kagyupa) 전통 속에서 경전을 공부하고 의식을 익히려는 수행자를 위한 도량이다. TNP는 이곳에 티베트어와 영어 교사를 제공함으로써 티룩푸르의 교육프로그램을 보완하고 있다.

## 세계최초 초소형 경전 순금나노 불경금책

순금의 기를 직접 만지며 느낄 수 있는 불경금책, 소병풍, 달마, 연꽃액자, 음마니반메홍족자 등

순금경전규격  
(소) 3.5 × 5cm  
(중) 5 × 7cm  
(대) 6.8 × 9.7cm  
· 변이성경(소, 중)  
· 천수경(중, 대)  
· 관세음보살보문품(중, 대)  
· 묘법연화경요품(중, 대)  
· 금강경(소, 중, 대)  
· 지장보살보문경요품(중)

관세음보살보문품    지장보살본원경    달마액자    연꽃액자    족자

최고급 소형 금병풍은 소법단, 스님방, 불자님의 가정에 소장용으로 최고이며 기도정진, 영가원도, 차례용등 여러 용도로 사용됩니다.

금달마, 연꽃액자, 음마니반메홍족자 등은 스님 및 각가정에 개인소장용으로 최고입니다. 불사용으로도 널리 사용됩니다. (불사용으로 단채주문시 크기별 제작가능)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어 세계생생 선근의 인연 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기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탁

흑단목108염주, 단주  
8mm 55,000원  
10mm 65,000원  
12mm 85,000원  
가량이 저명한 흑단목염주류는 행사보시용으로 수량에 따라 가격 조정이 가능합니다.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대)26×18×16cm 155,000원  
(중)20×12×12cm 9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없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의미와 복을 마음속에 이루어 주고 인연이 쌓여 저 너와 예불사에도 사용됩니다.

1등급 흑단목탁  
지름 6~6.5cm  
가격 95,000원  
소형이므로 스님 민행용으로도 최고입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하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기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양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양이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입니다. 스님 및 각가정에 개인소장용으로 최고입니다.

\* 제품 특성상 수공예 품으로 크기와 모양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 북한 신비의 금강염주

2가지 소원이 꼭 이루어지는 신비의 영입의 금강염주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금강염주와 금강염주는 1500℃이상에서도 녹거나 타지 않으며 강력한 화와 93% 원치외선, 높은음원이 발산하며 98%의 살균작용으로 영원토록 색상과 모양이 변하지 않고 남아있어 더

신비함을 드립니다. 녹색의 금강염주는 내세에 무량한 생명과 풍요, 행운, 번영, 장수, 건강, 명예와 왕생 상정하는 부처님께서 주신 연꽃을 의미하는 파도 마 염주입니다. 진법의 금강염주는 금강의 강현황이 발산되는 금강염주는 몸에서 나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안정되며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강한 마음으로 가족의 건강을 지켜 드리고 동서남 북의 복을 불러 2가지 소원이 꼭 이루어지는 신비의 영입의 금강염주입니다.

1SET(3EA) 245,000원

대리점 및 딜러모집  
불교용품점을 운영하시는 분 환영 소비자보호도 대리점가능  
무점포시 · 불심이 강하며 차량소유자로서 활동하시는 분